

# “시디지털교과서 강행 ‘안될말’ ”



전북 지역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가 함께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시디지털교과서 강행하는 이주호 장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2개 단체 회원과 개별 학부모들도 참석해 시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 도내 학부모·교원·시민단체, 이주호 교육부장관 규탄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 최상목 대항도 규탄

전북 지역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가 함께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시디지털교과서 강행하는 이주호 장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2개 단체 회원과 개별 학부모들도 참석해 시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어제 법원이 폭력에 무감각히 짓밟히는 장면을 은근히 지켜봤다. 교육에서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4년 간 약 6조라는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AIDT를 강행하려는 정권의 하수인들을 불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학부모협의회 이경훈 회장은 “기본적인 고교무상교육비는 거부하



전북대학교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책임진다

### 전북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전북대학교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특성상 겪는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개봉한 영화 '소방관'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이들이 마주하는 고통을 조명하며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이야기와 현실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윤명숙 심리지원 단장(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전문상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도내 15개 소방서와 56개 119안전센터, 소방본부 등 방문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조기 평가 및 심층상담,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수면장애,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훈련 등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돌본다. 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전문 상담인력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심리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윤명숙 단장은 “영화 '소방관'에서처럼 소방공무원들은 의상과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개인 건강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로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 서 교육감 “내실화된 학생부 기록에 정성을”

### 전략회의서... “수시 생기부 중요성 모두 알고 있을 것”

“학교생활기록부가 내실 있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수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학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각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학교도서관, 토론·놀이·휴식공간으로 ‘인기’

###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등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률 늘어 지난해까지 145개교, 향후 5년간 276개교 시행계획 수립

2029년까지 도내 학교도서관의 58%가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정서적 편안함을 주는 독서환경 제공으로 정보 활용, 토론과 협업, 놀이와 휴식 등 학생이 먼저 찾는 공간을 목표로 하는 도서관이다.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5개의 미래형 학교도서관이 조성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56개교,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학교도서관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학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 발간 △6개 학생교육문화관 ‘온책읽기 학교대출 서비스’ 확대 △학급 단위 장기·대량대출 및 북큐레이션 전시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실천연구회(2개팀) 모집 △학생맞춤형 독서교육 선도학교(1개교) 운영 등 학교도서관 진흥 정책으로 문해력 강화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력의 기초인 문해력 강화를 위해 2025년 10대 핵심과제 첫 번째로 독서·인문교육을 선정했다”며 “학교도서관을 우리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학교 독서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이진석 팀장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전주대 학교 LINC 3.0 사업단 이진석 팀장이 2024년도 LINC 3.0 사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이진석 팀장은 2003년부터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업무 수행,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주도하는데 참여하고,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정보담당관협의회 호남제주권 부회장으로서 3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 창출, RIS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의 운영, 지역혁신단의 설립 및 운영 등 산학협력 제도의 구축과 산학협력프로그램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진석 팀장은 “2025년도 지·산·학·연 및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생활실험실 캠프’ 개최

###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주 글로벌 호텔에서 ‘생활실험실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내가 도지사라면’이라는 주제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북 지역 초·중·고교 자녀를 둔 15가정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라감영로, 한옥마을, 웨딩거리, 객리단길 등 지역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교우 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초중등 복지 예정 교사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0~24일 5일간 초·중등 복지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5일간 총 30시간으로 초·중등 복지 예정 교사 75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학력신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평가 방법 △수업 운영 및 학급 경영 사례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권의 이해 등이다.

특히 2025년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완성 원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참여하는 강의로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설 명절 ‘청렴위반 주의보’

### 전북교육청, 내달 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달 2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직무태만, 품위 훼손,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보안관리 실패 △공무원 행동규범 이행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고의와 파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 선정

### 익산부천중·정주고·세인고·원광고 등 4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익산부천중학교, 정주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 등 4개교를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를 활용해 창업동아리 운영 등 교육과정 내 창업체험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은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을 활용한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과 2025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도 참여, 창업가정신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 도박 중독 학생 치유 전문병원 공모

### 전북교육청,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도박 예방 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도박 중독 학생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삼급종합병원에서 중독 분야를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돼 있는 병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3일까지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사업기관의 역량, 예산계획, 시설확보, 사업관리 등을 평가해 2월 1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 학업위기 학생 90명에 장학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사장 유정기)는 20일 학업위기 학생 90명에게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과 사회적인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업위기에 처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사랑의장학재단은 지난해 11월 3개 단계에서 기탁한 4,000만 원으로 중학생 40만 원, 고등

학생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선별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학생선발협의회 선정 과정을 거쳐 중학생 50명과 고등학생 40명 등 총 90명을 최종 선별했다.

한편 학업위기 장학금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학업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엔 처음 지급된 것이다.

/장은성 기자